

특별기고

생태도시의 조건 ⑧

물의 생태학에 흐르는 무위와 무욕에 대한 사유

(無爲) (無慾)



공명수 교수
대전대학교 영문학

물이 창조와 파괴, 성(聖)과 속(俗)의 양면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을 앞서 언급했듯이, 물의 생태학은 생명 자체 속에 수반되는 역설의 논리를 함의하고 있다. 물속에서는 약함(無)과 강함(有)의 상반 논리가 함께 들어 있다. 노자의 『도덕경』은 다음처럼 말한다:

“천하에서 물보다 더 유익한 것이 없다. 그러나 굳고 강한 것을 꺾는 데는 물보다 더 뛰어난 것이 없다. 아무것도 물의 본성을 바꿀 수 없다.”(제78장)

물의 생태학은 인간적인 특징으로 노자의 이상적인 인간 상인에 비유되고 있다. 이는 물의 생태학에 도(道)의 질서가 작용한다는 의미로 통한다. 물이 어떤 구체적인 물질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에 도(道) 자체에 가깝다는 것이다. 성인이 물과 같이 부드럽고 다루지 않고 무리 없이 일을 처리한다는 의미에서 물은 도(道)의 형상이고 구원되고 있는 것이다. 노자는 물을 부드럽고 약한 것의 상징이며, 이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인 무(無)의 상징이라고 여기고 있다.

물은 무(無)에서 유(有)가 나오고, 반대로 유(有)에서 무(無)로 이르는 역설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무(無)와 유(有)는 한 근원에서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인위적인 체계인 언어에 따라 이분법이 다른 것이다. 무(無)란 인간의 구별과 차별을 뛰어넘은 그 분리가 이전의 상태이며 모든 유(有)의 근원이자 단지 이분만 다를 뿐인 하나이다. 유(有)와 무(無)는 상대적으로 나 타나고, 어려움과 쉬움도 상대적으로 이루어지고, 길고 짧음도 상대적으로 형성되고, 높고 낮음도 상대적으로 대비되고, 상대적으로 어울리기 마련이다. 인간 개개

인이 무리하게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은 모두 물의 생태학적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물은 만물에게 좋게 베풀고 이롭게 해주지만, 자신을 위해 고명을 다루지 않고, 언제나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비천한 곳에 처해 있다. 그러므로 물의 특성은 도(道)에 가깝다. 물의 특성을 닮은 성인은 몸을 선천의 땅, 즉 ‘비천한 곳’에 두고, 마음을 최선의 곳, 즉 ‘허정(虛靜)’에 두고, 최선의 인을 베풀고, 최선의 실천적인 말을 하고, 최선의 다스림으로 바로잡고, 최선의 효능으로 일하며, 언제나 최선의 때를 따라 움직인다. 오직 ‘물과 성인은’ 다루지 않는다. 그러므로 허물이 없느니라.”(제8장)

노자의 『도덕경』에 따르면, 도(道)와 덕(德)은 삼라만상의 근본원리로 통한다. 도(道)가 만물을 생성하고, 덕(德)은 만물을 양육한다는 것이다. 만물이 음양의 기(氣)로 형성되고, 그것을 통해 자연의 힘이 생성되고 있다. 그러므로 만물은 도(道)를 존중하고 덕(德)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없다는 뜻이다. 도(道)를 존중하고 덕(德)을 귀중하게 여기는 남이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스스로 그렇게 되어 가는 과정을 중시한다는 의미로 통한다. 도(道)는 만물을 낳고도 소유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루게 하고도 자랑하지 않는 가운데, 오묘한 덕(德)이 쌓이게 된다. 이는 물이 지닌 신비의 이치와 일치한다.

물의 생태학은 물의 순환 과정과 깊은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물의 생태학 속에는 유기물과 무기물을 포함하여 살아 있는 삼라만상의 모든 생명이 숨쉬고 있다. 물의 순환구조는 만물을 구분하거나 구별하지 않고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바라보고 인위적으로 무엇인가를 무리하게 만들지 않고 또 그것을 강요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자랑하지도 않는다. 물은 구배에 어떤 일을 인위적으로 행하지 않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일도 없다.

따라서, 인간 개개인은 물의 생태학을 통해 자연적 본성인 도(道)에 복귀하고자 하는 무위(無爲)와 무욕(無慾)의 이치를 배운다. 물은 인간에게 치열한 경쟁의식에서 파생되는 지난한 억지와 교활한 꾸밈을 타고 넘어 인위가 없는 자연의 도(道)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물의 생태학에는 오히려 삶을 쇠신하고 적극적으로 개혁하려는 실천윤리학이 흐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포천아리랑을 아십니까?



이희용
포천예총 회장

밀양아리랑’은 영남지역에서 전하여지지만 영남지역의 정자토리 민요와는 일부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각 지역의 특징적 차이가 있기도 하다.

우리는 흔히 등하불명(燈下不明)이란 말을 즐겨 인용한다. 그 뜻은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로 표현하지만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도리어 잘 모르거나 남의 일은 잘 알지만 자신의 일은 잘 모름 때를 비유하여 쓰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구전민요는 누구나 아리랑이라 말하고 있다. 아리랑의 기원은 여러 가지가 설이 있는데 대체로 여음인 ‘아리랑’의 어원에 그 열쇠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아리랑’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시기는 대체로 1930년대를 전후한 시기로 보고 있다. ‘아리랑’의 유래를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리랑(我里娘) 나는 사랑하는 남을 따르다 라는 뜻의 말에서 유래했다는 설, 둘째, 아이농설(我耳農說) 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 할 때 부엌으로 고생하던 백성들이 좋은 말은 못 쓰고 괴로운 말만 듣게 되니 ‘차라리 귀가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말에서 유래했다는 설, 셋째, 아랑전설(阿娘傳說) 밀양 영남부의 아랑남자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한 노래에서 나왔다는 설 넷째, 알영설(閼英說) 신라의 박혁거세의 아내 일영부인을 친미한 말이 변하여 전해진다는 설이 있다. 다른 유래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느 것도 확실한 근거는 없고 그저 구음(口音)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나서 전해진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우리역사 속에서 아리랑은 다른 민요와 마찬가지로 노래의 성격과 가사를 가지고 있지만 어느 것도 확실한 근거는 없고 그저 구음(口音)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나서 전해진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우리역사 속에서 아리랑은 다른 민요와 마찬가지로 노래의 성격과 가사를 가지고 있지만 어느 것도 확실한 근거는 없고 그저 구음(口音)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나서 전해진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우리역사 속에서 아리랑은 다른 민요와 마찬가지로 노래의 성격과 가사를 가지고 있지만 어느 것도 확실한 근거는 없고 그저 구음(口音)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나서 전해진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우리는 흔히 등하불명(燈下不明)이란 말을 즐겨 인용한다. 그 뜻은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로 표현하지만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도리어 잘 모르거나 남의 일은 잘 알지만 자신의 일은 잘 모름 때를 비유하여 쓰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구전민요는 누구나 아리랑이라 말하고 있다. 아리랑의 기원은 여러 가지가 설이 있는데 대체로 여음인 ‘아리랑’의 어원에 그 열쇠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아리랑’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시기는 대체로 1930년대를 전후한 시기로 보고 있다. ‘아리랑’의 유래를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리랑(我里娘) 나는 사랑하는 남을 따르다 라는 뜻의 말에서 유래했다는 설, 둘째, 아이농설(我耳農說) 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 할 때 부엌으로 고생하던 백성들이 좋은 말은 못 쓰고 괴로운 말만 듣게 되니 ‘차라리 귀가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말에서 유래했다는 설, 셋째, 아랑전설(阿娘傳說) 밀양 영남부의 아랑남자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한 노래에서 나왔다는 설 넷째, 알영설(閼英說) 신라의 박혁거세의 아내 일영부인을 친미한 말이 변하여 전해진다는 설이 있다. 다른 유래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느 것도 확실한 근거는 없고 그저 구음(口音)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나서 전해진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우리역사 속에서 아리랑은 다른 민요와 마찬가지로 노래의 성격과 가사를 가지고 있지만 어느 것도 확실한 근거는 없고 그저 구음(口音)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나서 전해진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우리역사 속에서 아리랑은 다른 민요와 마찬가지로 노래의 성격과 가사를 가지고 있지만 어느 것도 확실한 근거는 없고 그저 구음(口音)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나서 전해진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우리역사 속에서 아리랑은 다른 민요와 마찬가지로 노래의 성격과 가사를 가지고 있지만 어느 것도 확실한 근거는 없고 그저 구음(口音)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나서 전해진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우리역사 속에서 아리랑은 다른 민요와 마찬가지로 노래의 성격과 가사를 가지고 있지만 어느 것도 확실한 근거는 없고 그저 구음(口音)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나서 전해진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우리역사 속에서 아리랑은 다른 민요와 마찬가지로 노래의 성격과 가사를 가지고 있지만 어느 것도 확실한 근거는 없고 그저 구음(口音)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나서 전해진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우리역사 속에서 아리랑은 다른 민요와 마찬가지로 노래의 성격과 가사를 가지고 있지만 어느 것도 확실한 근거는 없고 그저 구음(口音)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나서 전해진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우리역사 속에서 아리랑은 다른 민요와 마찬가지로 노래의 성격과 가사를 가지고 있지만 어느 것도 확실한 근거는 없고 그저 구음(口音)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나서 전해진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우리역사 속에서 아리랑은 다른 민요와 마찬가지로 노래의 성격과 가사를 가지고 있지만 어느 것도 확실한 근거는 없고 그저 구음(口音)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나서 전해진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우리역사 속에서 아리랑은 다른 민요와 마찬가지로 노래의 성격과 가사를 가지고 있지만 어느 것도 확실한 근거는 없고 그저 구음(口音)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나서 전해진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우리역사 속에서 아리랑은 다른 민요와 마찬가지로 노래의 성격과 가사를 가지고 있지만 어느 것도 확실한 근거는 없고 그저 구음(口音)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나서 전해진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우리역사 속에서 아리랑은 다른 민요와 마찬가지로 노래의 성격과 가사를 가지고 있지만 어느 것도 확실한 근거는 없고 그저 구음(口音)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나서 전해진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우리역사 속에서 아리랑은 다른 민요와 마찬가지로 노래의 성격과 가사를 가지고 있지만 어느 것도 확실한 근거는 없고 그저 구음(口音)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나서 전해진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우리역사 속에서 아리랑은 다른 민요와 마찬가지로 노래의 성격과 가사를 가지고 있지만 어느 것도 확실한 근거는 없고 그저 구음(口音)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나서 전해진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우리역사 속에서 아리랑은 다른 민요와 마찬가지로 노래의 성격과 가사를 가지고 있지만 어느 것도 확실한 근거는 없고 그저 구음(口音)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나서 전해진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우리역사 속에서 아리랑은 다른 민요와 마찬가지로 노래의 성격과 가사를 가지고 있지만 어느 것도 확실한 근거는 없고 그저 구음(口音)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나서 전해진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우리역사 속에서 아리랑은 다른 민요와 마찬가지로 노래의 성격과 가사를 가지고 있지만 어느 것도 확실한 근거는 없고 그저 구음(口音)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나서 전해진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우리역사 속에서 아리랑은 다른 민요와 마찬가지로 노래의 성격과 가사를 가지고 있지만 어느 것도 확실한 근거는 없고 그저 구음(口音)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나서 전해진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우리역사 속에서 아리랑은 다른 민요와 마찬가지로 노래의 성격과 가사를 가지고 있지만 어느 것도 확실한 근거는 없고 그저 구음(口音)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나서 전해진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우리역사 속에서 아리랑은 다른 민요와 마찬가지로 노래의 성격과 가사를 가지고 있지만 어느 것도 확실한 근거는 없고 그저 구음(口音)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나서 전해진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우리역사 속에서 아리랑은 다른 민요와 마찬가지로 노래의 성격과 가사를 가지고 있지만 어느 것도 확실한 근거는 없고 그저 구음(口音)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나서 전해진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우리역사 속에서 아리랑은 다른 민요와 마찬가지로 노래의 성격과 가사를 가지고 있지만 어느 것도 확실한 근거는 없고 그저 구음(口音)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나서 전해진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우리역사 속에서 아리랑은 다른 민요와 마찬가지로 노래의 성격과 가사를 가지고 있지만 어느 것도 확실한 근거는 없고 그저 구음(口音)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나서 전해진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우리역사 속에서 아리랑은 다른 민요와 마찬가지로 노래의 성격과 가사를 가지고 있지만 어느 것도 확실한 근거는 없고 그저 구음(口音)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나서 전해진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우리역사 속에서 아리랑은 다른 민요와 마찬가지로 노래의 성격과 가사를 가지고 있지만 어느 것도 확실한 근거는 없고 그저 구음(口音)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나서 전해진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교육에세이 77

여름방학을 준비하는 마음



이호연
평택초등학교 교장

활을 벗어난 다양한 경험을 해 보기도 하고, 뒤떨어진 과목을 보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이다. 이런 좋은 기회를 잡았던 계획으로 반납이 보람을 얻지 못한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계획을 세울 때 학생들이 범하는 오류를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계획을 세울 때 1분초도 남비하지 않고 철저하게 계획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다음으로는 24시간을 철저히 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는 것이 동그라미 생활계획표이다. 동그라미 생활계획표를 짜 놓고 그대로 실천한 학생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한 가지 계획을 실천하지 못하면 그 다음 계획은 지킬 수가 없고 결국은 동그라미 생활계획표를 지킬 수 없게 된다. 계획대로 생활을 못했으니 자책감이 생겨 쉽게 계획을 포기하는 경향이 생긴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오해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쉼 때는 쉬는 것으로 24시간을 철저히 계획하는 것이 아닌 중요한 일, 해야 할 일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되 그 외에는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다.

계획을 세우기 위해 이제 시작할 일은 우선 그날 해야 할 중요한 일이나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해 보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필자도 초등학교시절을 회상해보면 그때 당시의 일괄적으로 지급되었던 ‘방학 생활’을 모두 해결해 내기가 힘들었다는 기억이 새롭다. 방학은 자기주도적인 학

습이 주류를 이루므로 교사, 학생, 학부모가 면밀한 계획을 세워 보람 있는 시간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 방학은 학교생활을 벗어나 다양한 경험을 해 보기도 하고, 뒤떨어진 과목을 보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동그라미 계획표의 모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계획표가 바로 포로 작성하는 계획표다. 학생들의 방학 생활을 요약별로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생활 모습이 같을 수 없다.

예를 들어 EBS교육방송도 학년과 요일 및 시간대가 다르다. 동그라미 계획표에 표시하려면 시간대별로 일괄 표시해야 하지만 포 계획표에 의하면 EBS교육방송시간을 해방되는 요일과 시간에 표시하면 된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생활 내용은 전체 요일을 같은 내용으로 기록하면 된다.

방학과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여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한다. 그 한 방법으로 충분한 방학생활 개리를 제공해 주고 부모와 담임선생님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방학생활 과제로 결정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자기 주도적인 과제를 정하게 하는 것도 부모님과 협의를 거치게 한다. 자기주도적인 과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과제의 예를 들어 보면 경로 효친 정신을 기르기 위해서 ‘친척 열 분에게 편지를 보내고 답장을 받아 제출하기’, 심미적인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 ‘미술관 견학하고 작품 감상한 내용을 그리거나 적어 제출하기’,

“피아노 연습을 하루 1시간 이상하고 연습한 장면을 비디오로 녹화하여 제출하기.” 등등 학생 주안에서 손쉬우면서 재미있게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생각하면 다양하게 자기 주도적인 과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 혼자 할 수 없고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자기주도적인 과제를 예로 들면 “갯벌체험을 하고 체험한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기”, 놀이공원에 가서 놀아 보고 재미있게 놀 놀이시설 그리보기” 놀, 산, 어촌, 도시에 가서 생활 모습을 살펴 보고 새롭게 발견한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해 보기” 등등을 들 수 있다.

학생들에게 방학생활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언론 매체에 접근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교과 학습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방학생활은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길러주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배도록 한다. 매일 10분이라도 거르지 않고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한다.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의 경우 상위권 자녀에게는 반박이나 복습보다는 수준 있는 응용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여 도전과 성취감을 느끼도록 한다. 중위권 자녀에게는 복습과 예습을 적절히 병행하게 한다. 하위권 자녀에게는 무리하게 학교 진도를 따라가도록 강요하지 말고 능력이 맞는 쉬운 문제부터 풀도록 해서 자신감을 갖도록 배려한다.

전기안전관리 등불...!!

경기북부전기안전관리공사



대표 안병호

- 전기안전관리 대행 업무
- 전기설비의 점검 및 진단
- 최첨단 측정 장비 보유
- 신속하고 철저한 서비스

점검대상 : 학교, 관공서, 빌딩, 공장 등 자가용 전기설비



전기안전점검 및 A/S 대책회의



변압기 정밀점검

고객의 전기시설물을 경제적, 기술적으로 관리하며 전기안전을 책임지는 기업

회사명 : (주)경기북부전기안전관리공사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213-4 TEL : 031)541-9111~4 FAX : 031)541-9115